

러시아 쿠릴열도에 관한 러·일 분쟁사 연구

- 러·일이 체결한 영토조약을 중심으로 -

박종효*

1. 머리말
2. 쿠릴열도와 러·일 국경조약
3. 일본의 항복과 일본영토 분할
4. 소·일 양국 평화조약 협상과 통상 수교 재개
5. 러시아 연방 공화국의 쿠릴 정책
6. 남 쿠릴 영유권에 대한 러·일 양측의 주장
7. 맺음말

1.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동북아에서는 일본과의 도서영유권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바로 러시아의 쿠릴열도(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단순히 '쿠릴'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독도(獨島) 그리고 중국의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어로 센카꾸)가 그 예(例)이다.

* 모스크바대학교 한국학센터 명예교수

그 중 특히 일본은 러시아의 남(南)쿠릴을 북방영토(北方領土 :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 꾸나쉬르(國後), 이뚜루프(擇捉) 4개 도서)라고 호칭하면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San-Francisco)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래 러시아와 남쿠릴 반환문제로 영토분쟁을 고조시키고 있다.

남쿠릴 중의 하나인 하보마이를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Дмитрий А. Медведев)가 2010년 11월 1일¹⁾ 전격 방문하고 방위력 증강을 포함한 주민의 생활 향상과 경제개발을 약속하면서 분쟁이 재연된 것이다.²⁾

말하자면 일본은 역사적으로 북방영토가 일본영토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³⁾가 전후 무력으로 점령해 반환을 거부하고 지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맹비난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이 2차 대전의 결과에 순응하라고 반박하고 이웃 국가(중국, 한국, 베트남 등)와 '역사문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쿠릴열도 문제에 해결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2차 대전 이후 쿠릴이 소련에 양도되었다는 러시아 측의 발표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북방 4개 도서의 역사는 물론 법적으로도 일본 영토이므로 반환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격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일본측에 역사공부를 더하라고 충고하고 일본은 2차 대전의 결과로 발생한 영토질서에 대해 다른 패전국의 사례를 따르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였다.⁴⁾

이런 논쟁이 러·일 양국 간에 계속되면서 일본에서는 지난 2011년 2월 7일 연례행사가 된 북방영토의 날에 대규모 극우파 시위대가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 국기를 발로 밟고 찢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러시아 대사관은 일본형법 92조에 해당하는 외국국기에 대한 모독행위에 해당한다며 일본경찰에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러시아 국기가 일본인이

1) *Известия*, 2010. 11. 2.

2) *Правда*, 2011. 2. 16 : 「朝鮮日報」, 2011. 2. 18.

3) 소련붕괴 이후 일본은 소련을 러시아로 호칭하고 있다. 이후부터 소련 러시아 혼용.

4) *ИА REGNUM*, Москва, 2011. 1. 27. : 「朝日新聞」, 東京, 2011. 1. 25.

만든 사제품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교묘한 답변으로 응수하였다. 이렇게 러·일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본은 우리 독도(獨島)를 러시아의 남쿠릴 문제와 짝지어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남쿠릴 문제가 러·일 불화의 핵으로 발전한 과정을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러시아측 자료를 중심으로 러·일 양국이 쿠릴열도에 관해 최초 체결한 국경조약부터 알타협정 및 전후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모스크바, 소·일 공동선언까지 개관해 러·일 양국의 쿠릴열도 분쟁의 역사적 관계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2. 쿠릴열도와 러·일 국경조약

1) 쿠릴열도의 기원과 자연환경

쿠릴열도는 러시아 캄차카(Камчатка)반도에서 일본 홋카이도(北海島)연안까지 1,175km에 이르는 해상에 화산폭발로 출현한 30여 개가 넘는 큰 섬과 100여 개의 작은 무인도로 형성되어 있다. 총면적은 1만 5천6백 평방키로미터에 달하며 태평양과 오츠크 해(Sea of Okhotsk)의 분계선에 위치해 있고 현재 행정적으로 러시아 연방 사할린 주에 속해 있다.

열도가 길게 산재해 있어 러시아에서는 지리적인 구분으로 맨 위 지방의 도서군을 북(北)쿠릴, 중앙에 있는 도서군은 중(中)쿠릴 그리고, 맨 남쪽의 일본 홋카이도(北海島) 위에 있는 도서군을 남(南)쿠릴이라고 호칭한다. 그 중 남 쿠릴이 가장 면적이 크고 주거환경이 좋은 편인데⁵⁾ 이 도서군을 일본에서는 자국의 북방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⁶⁾

이 쿠릴열도의 원주민은 아이누(Айн)족이며 쿠릴열도의 도서명칭은

5)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소련 대백과사전), том 14, Москва, 1973, с. 31.

6) *Japan Times*, 1992. 12. 22.

러시아가 1643년에 처음 발견했을 때 아이누 족이 러시아인을 보고 “꾸르” (아이누 언어로 사람 혹은 외지인)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잘못 전해져 쿠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러시아어 “꾸리찌(Куричь), 담배 피우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로 쿠릴열도가 담배처럼 길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본어로는 지시마렛도(千島列島)라고 호칭하며 많은 섬을 뜻한다. 도서 지명은 아이누 족의 언어이다. 이뚜루프는 “큰 언어”, 꾸나쉬르는 “검은 섬” 그리고 쉬꼬딤은 “좋은 장소”라는 말이라고 한다.⁷⁾

지 도 1



▲ --- (러측 명칭 남쿠릴열도 범위), ... (일측 명칭 북방영토 범위)

원주민인 아이누 족은 언어와 용모가 일본인과는 다르게 얼굴색이 하얗고 턱수염이 많다. 아이누 족은 주로 북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쿠릴열도와

7) С. Васильев,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згляд японских ученых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 학자의 견해)”,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01. 1. 11.

사할린 남부 일부 해안지역에 걸쳐 거주하였다.⁸⁾

처음으로 러시아는 1643년경에 캄차트카와 쿠릴열도를 발견하고 1705년부터 북 쿠릴에서 시작해 점차 북해도 일부까지 확대해가며 모피 등의 야사끄(ясак=현물세)를 아이누 족에게서 징수했다.⁹⁾ 당시 일본인은 겨울에 혹한의 기후를 피해 비교적 온화한 홋카이도 남쪽 일부 지방에서만 거주하였으나 18~19세기에 국력이 신장되고 인구가 팽창되면서 아이누 족의 거주지역인 홋카이도를 합병하고 쿠릴열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 소위 북방영토라는 말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1968년 일본 외무성 관보 1968년 No.11에서 쿠릴열도와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지명이다.¹⁰⁾ 남 쿠릴은 북해도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특히 하보마이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3.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전 도서의 지명인 “쿠릴열도”는 1745년 러시아 아카데미에서 러시아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로 러시아 영토로 “러시아 제국”이란 지도를 발행하면서부터 일본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쿠릴열도라는 도서명을 사용하고 있다.¹¹⁾ 인구는 현재 남 쿠릴에 거주하는 러시아 인은 국경수비대(약 3,000여 명) 외에 민간인은 10,290명이다.¹²⁾

원주민인 아이누 족은 전에 일본과 소련이 지배하면서 북해도 등으로 보내 거주자가 거의 없으며 연근해에는 연어, 대게, 명태, 꽂치, 돌고래 등이 많으며 산에는 곰, 여우, 흑 단비와 밍크 그리고 각종 철새가 서식하고 있다.

특히 아직 개발하지 않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러시아천연자원성(天然資源省)에서 조사한 바로는 석유는 약 3억 6천400만

8) 현재 아이누 족은 총 약 3만 명으로 홋카이도에 25,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은 5천명은 일본의 여러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에는 사할린, 쿠릴열도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수가 거주한다.

9) Б. Воробьев, *Айн нь*(아이누 족), М., 2005, с.3~7.

10) В. В. Аладьин, *Россия и Япония пропущенные веки к мирному договору*(러·일이 평화조약에 누락된 점), М. 2001, с. 9.

11) FRUS(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Conferences at Malta and Yalta*, 1945. Washington, 1955, p.378.

12) Л. А. Конокова, Н. К. Солдаткина,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사할린주 인구통계연감),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10, с. 11~15.

톤 그리고, 가스와 금이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으며 전자제품과 항공기 제조에 필요한 고가의 희귀토(稀貴土)를 이미 채굴하고 있다고 한다.¹³⁾

지도 2



▲ 18세기 일본인 하야시가 그린 일본지도와 한국지도
(호카이도는 일본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최초 러·일 시모다(下田) 국경조약(1855. 1. 26 = 러시아 구력 2. 7)

러시아는 1805년에 알렉산드르 I 세(Александр I) 황제의 칙령(勅令)으로 식민지 개발과 통상을 전담할 반관영(半官營)해운회사로 발족한 러·미 회사(Русско-Американская Компания, 필자 주: 이 회사는 1845까지 25회에 걸쳐 세계 여러 지역을 탐험했으며 쿠릴열도에서는 원주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였다) 대표 시종무관 니콜라이 레자노프(Николай Резанов)를 특사로

13)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러시아 신문), 2009. 2. 26.

일본 나가사끼(中崎)에 파견하여 마추마이(홋가이도의 옛 명칭)북방에 위치한 전도서(쿠릴열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할 것과 통상을 제안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후 레자노프는 1806~1807에 두 척의 배를 다시 일본에 파견하여 조약체결을 목적으로 무력시위를 감행하다가 배를 약탈당하고 그 보복으로 이뚜루프의 일본인 거주 마을을 방화하였다.¹⁴⁾

이 사건으로 러·일 관계가 악화되어 수십 년간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 통상조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을 들은 러시아 정부는 통상 및 국경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1853년에 군함 빨라다(Паллада)호로 세계 항해일주를 한 뿌짜틴(Ефим В. Путятин)제독을 극동에 파견하였다.

당시 러시아는 쿠릴열도를 형식적으로 지배하고 까자끄 병사의 주둔이나 행정관서를 두지 않았다. 1년에 한두 번 아이누 원주민으로부터 러시아에 충성을 맹세 받고 모피등의 현물세(야사크, ясак)만 징수해갔다. 연도별로 현물세 징수 상황을 보면¹⁵⁾:

1705~1713년 처음 2개 도서부터 징수하기 시작했다.

1734년 : 4개 도서

1951~1955년 : 16개 도서

1766년 : 16개 도서와 남 쿠릴의 아이누족 확대

1768~1769년 : 20개 도서(우루프, 이뚜루프, 꾸나쉬루)

1778~1979년 : 시코탄 및 마추마이(현재의 홋가이도) 일부까지 22개 지역으로 확장

그러나 현물세 문제로 원주민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면서 말라야 쿠릴(малая куриль : 일측에 반환을 약속한 하보마이, 시코탄 두 섬)이 러

14) Н. Н. Болховитинов, *Открытие Россией Северо-Запада Америки*(러시아의 아메리카 북서부 발견(1732~1741)), М., 1990, с. 278~282.

15) *Архи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СПб*, 1869, Т. 1. ч.2, с. 664.

시아 지배에서 이탈해 1771년 일본의 보호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 국적을 신청하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1797~1798에 이뚜루프, 꾸나쉬르 그리고 마추마이에서 아이누 족 원주민 1,500명으로부터 러시아 국적 신청을 받았다. 그러자 도꾸가와(徳川家) 막부는 아이누 족도 일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1799년 이뚜루뿌와 꾸나쉬르에 경비초소를 설치하였다.¹⁶⁾ 이때 일본은 홋카이도 남쪽의 아이누 족의 거주지역에 수개 일본인 마을밖에 없었으며 사할린에도 남쪽 항구에 아이누 족의 마을 근처에 소수의 일본인 어민이 거주하였다. 그 외 대부분 지역은 러시아인이 진출해 있었다. 그런데 일본은 1845년에는 전 쿠릴열도를 일본영토로 일방적으로 주권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뿌짜틴은 1853년에 일본에 도착해 일본과 통상 및 국경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뿌짜틴은 일본의 주권선언은 무효이며 쿠릴열도에 러시아 인이 거주하고 있고 전부터 러시아 영토라고 말하자 일본측은 아이누 족도 일본인이므로 남 쿠릴(4개 도서)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였다. 뿌짜틴은 일본의 요구를 처음에 거부하였으나 마침 크레미아 전쟁으로 영·불 연합함대가 동해에서 뿌짜틴의 빨라다호를 미행하고 미국이 앞서 통상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조금해져 현실을 인정하고 우루프(уруп)와 이뚜루프(И туруп)를 경계로 이뚜루프를 포함한 남쪽 전 도서군(일본이 말하는 현 북방 영토)은 일본에 양보하고 우루프를 포함하는 북쪽에 위치한 전 열도는 러시아가 소유하기로 합의하여 시모다(下田)에서 일본과 통상 및 국경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대신에 러시아는 사할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추후에 일본과 사할린 분할을 하기로 합의하고 러시아인이 사는 지역은 러시아 영토로, 일본인과 아이누 족이 거주하는 남쪽지방은 일본 영토로 분할하지 않고 그 상태를 잠정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¹⁷⁾

16) Росий ская газета, 2009. 2. 26.

17) Э. Д. Гримм, Сборник договоров и других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극동의 조약 및 기타 국제관계 서류집), М., 1927, с. 52.

(Статья 2. Отныне границы между Россиуй и Японией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между овами Итурупом и Урупом. Весь остров Итруп принадлежит Японии, весь остров- уруп и прочие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к северу составляют владение России. Что касается о. Карафута (Сахалин), то он остается неразделенным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как было до сего времени).

이렇게 남쿠릴(북방영토)은 시모다(下田) 조약으로 일본영토가 되었던 것이다. 이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국경이 확정 되어 러·일간에 쿠릴에 대한 주권분쟁은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아이누 족도 일본인이며 남쿠릴은 고대로부터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주장이 이 조약에서 유래되었다.

3) 러·일 삐쩌르부르크 조약(1875.4 25 = 5. 7 러시아 구력)

시모다 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는 1860년에 청국에서 연해주(沿海州)를 양도 받자 아무르강(Амур)하구에 위치한 사할린을 중요시하고 전 영토를 소유하려고 앞서의 시모다 조약에서 보류했던 사할린 국경확정에 관해 1875년 5월 7일 삐쩌르부르크(Сант-Петербург)에서 일본과 국경조약을 개정하였다. 이 삐쩌르부르크 조약에서 사할린 남쪽의 일본인과 아이누 족의 거주지방을 러시아가 일본 측으로부터 양도받는 대신에 러시아가 소유한 전 북 쿠릴열도를 일본에 양도하였다.¹⁸⁾

(Статья 1. Его Величество император Японский за себя и Своих наследников, уступает Его Величеству Императору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часть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Карафто), которую он ныне владеет, со всеми верховными правами, истекающими из э того владения, так что отныне означенный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весь

18) *Сборник пограничных договоров, заключенных Россией с Соседн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인접국가와 체결한 러시아의 국경조약 집), СПб., 1891, с. 292~299.

вполне будет принадлежать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и пограничная черта между Империями Российской и Японской в этих водах через Лаперузов пролива).

이 삐제르부르크 러·일 국경개정조약은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분할하지 않고 상호 전 도서를 각각 지배하게 되어 양국의 국경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1905년 러·일 포츠머스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4) 포츠머스(Portsmouth) 러·일 평화조약(1905. 9. 5)체결 전후

일본은 1904년에 2월 8일 제물포(濟物浦)에 정박하고 있던 러시아 해군 함 배랴크((Варяг)와 가레예치(Корей цыг=한국인)호를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을 개시했다. 러시아는 일본과 최후의 결전을 위해 세계 최강의 하나라고 자랑한 태평양 제2, 제3함대(일본에서는 발트함대로 호칭)를 삐제르부르크에서 파견하여 동해를 장악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중에 대마도(對馬島)근해에 잠복하고 있던 일본해군의 급습을 받고 패주하다가 독도(獨島) 앞 300 마일 해상에서 1905년 5월 28일 일본 해군에 포위되어 전 함대가 항복하고 말았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 연전연패를 거듭하던 러시아가 유일한 희망으로 파견했던 태평양 제2, 제3함대가 참패했다는 소식에 미국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Theodor Roosevelt)는 일본 해군력의 성장이 앞으로 태평양에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는 러시아에게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러·일 평화협상을 주선해 러·일이 미국 포츠머스(Portsmouth)에서 1905년 9월 5일 평화조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사할린을 북위 50도선으로 남북으로 분할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앞서의 1855년에 쿠릴열도를 러·일이 분할한 시모다(下田) 조약과 1875년에 북 쿠릴과 남부 지역의 사할린을 교환한 삐제르부르크 조약을 모두 폐기시켰다.

러시아 니콜라이 II 세(Николай II) 황제는 협상대표단에게 영토는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칙령을 보냈으나 만주전선에서 러시아의 전황이 악화되어 부득이 일본의 요구에 동의해야 했다. 일본은 이 조약으로 남사할린과 함께 전 쿠릴열도를 합병시키고 북사할린만 러시아영토로 남겨 놓았다.¹⁹⁾

그 후 또다시 일본은 러시아가 1917년 사회주의 혁명으로 내전이 발생한 혼란을 틈타 1918년부터 1925년까지 7만여 명의 병력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무단으로 상륙시켜 연해주, 아무르주, 바이칼 동부주 그리고 북 사할린 등을 약 4년간 점령하고 살인과 방화는 물론 약탈을 자행하였으며 북 사할린에서는 자국 영토처럼 군정을 실시하는 한편 지명도 일본어로 개칭하였다.

극동지역

금: 43톤(까잔에서 움스크로 수송 중인 러시아 정부 비축 금괴)

열차: 2,000차량(연해주 및 바이칼 동부주에서)

선박: 상선 248척, 소형 어선: 131척

목재: 65만 쿠바 미터 이상

어물: 금화 4백50만 루블 상당, 연어(淵魚)는 100%, 청어는 75% 탈취

북 사할린

석탄: 239천 톤

목재: 3만 쿠바 미터

석유: 22천 톤²⁰⁾

그러나 러시아가 혁명에 성공하면서 소·일은 1925년 1월 20일 북경에서

19) *Протокол Портсмутской мир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и текст Договор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заключенного в Портсмуте 23(5. Сентября) августа 1905 года* (1905년 포츠머스 러·일 평화조약 회의록과 조약문), СПб., 1906, с. 101~103.

20) М. Ю. Рагинский, *Милитаристы на скамье подсудимых. По материалам Токийского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процессов*(피고석의 군국주의자들), М., 1985, с. 16~17.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관한 소·일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은 이 때 포츠머스에서 체결한 러·일 평화조약에서 영토관계 규정을 재확인하고 일본군을 점령지에서 철하게 했다.²¹⁾

5) 알타(Ялта)협정(1945. 2. 11)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11월 27일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L.S. Churchill) 수상, 중국의 장개석(蔣介石) 총통이 이집트의 카이로(Cairo)에서 회동하여 전쟁 도발국 일본이 무력으로 혹은 탐욕으로 점령한 모든 영토나 태평양에 있는 도서를 전후 일본으로부터 박탈하기로 '카이로 선언'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선언을 한 그 날 루즈벨트와 처칠은 소련군 국방위원장 요시프 스탈린(Иосиф В. Сталин : 1941년 독일의 침공을 받은 직후 스탈린은 소련방 인민위원장과 국방위원장 그리고 소련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였다)과 별도로 회담을 갖기 위해 이란(Iran)의 수도 테헤란(Teheran)에 도착한다.

3국 정상은 테헤란에서 1943년 11월 28일에서 12월 1일까지 회동하였다. 루즈벨트와 처칠은 스탈린에게 유럽에서 영국과 미국이 앞으로 제2 전선을 구축해 대독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는 대신, 소련은 1941년에 체결한 소·일이 1941년 4월 13일 체결한 중립조약(中立條約)을 일본이 위반한 채 나치 독일과 동맹을 체결하여 나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약을 폐기하고 독일이 항복한 후에 극동 대일전선에 참전을 촉구했다.²²⁾

소련의 극동전선 참전문제로 영·미·소 3국 정상은 다시 소련 크림리아 반도 알타에서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회합하고 “소련은 독일이 항복한 후 2~3개월 이후에 극동 대일전에 참전하는 조건으로 연합국이 승리한 다음 러·일 전(1904~1905)으로 일본에 빼앗긴 남부 사할린 및 그 부

21) Г. Рейхберг, *Разгром японской интервенц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극동에서의 일본 간섭 분쇄), М., 1940, с. 198~200.

22) В. К. Зиланов, А. А. Кошкин, И. А. Латышев и другие, *Русские Куриль*(러시아 쿠릴), М., 2002, с. 75.

속 도서의 반환과 전 러시아 영토였던 쿠릴열도를 소련에 틀림없이 양도한다.”라는 알타협정을 체결하였다.²³⁾

즉, 1945년 2월 11일 소련, 미합중국, 대영제국 3국 정상은 독일이 항복하고 유럽에서 전쟁을 종결시킨 후 2~3개월이 지나 소련은 다음 조건으로 대일전에 참전하기로 합의한다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조항을 보면:

2조: 1904년 일본의 침략으로 상실한 러시아 영토주권의 회복

a) 남 사할린과 그의 부속도서는 소련에 반환

3조: 쿠릴열도를 소련에 양도²⁴⁾

한편 독일이 1945년 5월에 항복하자 미·영·소의 알타협정을 인지하고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황실과 가까운 고노에(近衛) 공에게 “외교 채널을 통해서 소련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달하라”는 전권을 위임하였다:

“만약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거부하고 한반도의 그 어떤 식민지 해방에도 반대한다면 남 사할린과 쿠릴을 소련에 반환하겠다.”

(Токио готово возратить СССР Курилы и Южный Сахалин, но против какой-либо деколо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если Москва откажется от планов войны против Японии)²⁵⁾

그러나 소련 고위층은 일본 군국주의의 정치군사적인 완전한 괴멸을 추구하며 고노에와 공식적인 외교접촉을 기피하고 결국 소련은 알타협정으로 대일전에 참전하게 된다.

23)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период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조국전쟁기의 소련의 대외정책) т. 3, М.: Наука, 1947, с. 111~112.

24) Б. Н. Славинский, *Ялтинская Коференция и проблема Северных территорий* (북방 영토문제), М., 1996, с. 106~108, 208~209.

25) А. В. Толкнов, В. И. Денисов, В. Ф. Л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한반도), М., 2008, с. 60.

6) 소련의 참전과 미·소 수뇌의 마찰

알타협정에 따라 소련은 독일이 항복한 지 꼭 3개월이 되는 날에 1945년 8월 9일에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였다. 그리고 소련군이 만주를 비롯 북한의 청진, 그리고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일시에 공격한 지 6일 만에 스탈린은 8월 14일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Herry S. Truman)으로부터 소련의 점령지역이 명시된 맥아더 일반명령 1호에 관한 편지를 받았다.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 Arther) 장군에게 발송할 1호 명령에는 소련군이 일본군으로부터 항복 받아야 할 작전지역이 명시되어 있었다. 만주, 한반도 38선 이북, 그리고 사할린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 쿠릴열도는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놀란 스탈린은 1945년 8월 16일 트루먼에게 보낸 회신에서 일반명령 1호의 만주문제 등 내용에는 동의하나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1) 3국정상의 크리미아(알타) 결정에 따라 소련의 영토가 되어야 할 쿠릴 열도 전 도서를 소련군이 일본군으로부터 항복 받는 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 Включить в рай он сдачи япон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оветским вой скам все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которые согласно решению трех держав в Крыму должны перейти во владени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그리고 특히 러시아 혁명기에 일본군이 소련을 무단으로 침입해 러시아 극동영토를 유린하고 살인과 약탈²⁶⁾을 감행하였으므로 “만약 러시아군이 일본 본토²⁷⁾의 일부를 점령하지 않게 된다면 러시아사회주의연방의 사회 여론은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일본 본토 일부 점령²⁸⁾ 제안에

26) Г. Рей хберг, там же, с. 198~200.

27) 포츠담 선언에 명시된 일본영토 4개 도를 이른다.

28) 북해도의 절반을 이른다.

반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²⁹⁾

그러나 트루먼은 1945년 8월 18일자 스탈린에게 보낸 회신에서 쿠릴열도의 점령은 동의하나 북해도 점령은 이미 맥아더 장군에게 위임하여 불가능하다고 했다. 트루먼은 오히려 미군의 군사기지로 필요하니 소련이 점령할 남 쿠릴 중 한 도서에 미군 비행장과 군사 및 상업시설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스탈린은 트루먼의 요청을 받고 1945년 8월 22일에 트루먼에게 보낸 회신에서 일본본토인 북해도 일부의 점령 거절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쿠릴열도의 한 도서에 미군의 군사시설 요청도 허용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때부터 쿠릴열도로 인해 미·소간에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었던 것이다.³⁰⁾

3. 일본의 항복과 일본영토 분할

1) 동경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지령서(1946. 1. 29)

일본이 마침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무조건 항복한다는 문서에 1945년 9월 2일 일본정부를 대표한 시게미쓰(重光) 외상³¹⁾의 서명이 있는 후 10월부터 동경에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동년 12월에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³²⁾으로 동경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고문기구로 사령

29) В. К. Зиланов, А. А. Кошкин, И. А. Латышев и другие, там же, с. 90~92.

30) МИД СССР, *Переписка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с президентами США и премьер министрам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во врем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소련, 미국, 영국 3국 수뇌의 교신서), М., 1957, Т. II. 1941~1945, с. 263~264 ; В. К. Зиланов, А. А. Кошкин, И. А. Латышев и другие, там же, с. 88~90.

31)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 공원에서 폭탄 투척사건으로 당시 주중 일본 공사였던 시게미쓰는 발을 절단해 불구자가 되었다. 후에 외상이 되어 발을 절면서 미국 군함 미주리 호 선상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한다. 또 다음에 독도문제에도 개입하였다.

32) 주요 내용은 1)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한 미·소공동회 2) 연합군 군사 대표자회의 3) 연

부에 미·영·소·중 4개국 군사대표자회의 설치가 결정되었다. 소련측에서는 대표로는 데레비얀코(Кузьма Н. Деревянко) 중장이 1946년 1월 3일에 임명되었다.

이 기구는 특히 포츠담 선언³³⁾의 이행에 대해 연합국 최고사령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었다. 이 고문기관은 또 전후 일본의 헌법제정 및 전범재판 등의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싱턴에 설치된 극동위원회³⁴⁾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였다.

동경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는 포츠담 선언에서 이미 일본영토로 명시한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및 지정한 도서로 제한했음을 확인하고 알타 협정을 군사회의 대표자와 협의한 후 1946년 1월 29일 일본정부에 보낸 지령서 SCAP(SCAPIN=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No.677에서 일본 영토를 북해도, 혼슈, 시코쿠, 규슈 및 지정한 도서로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종전에 일본이 소유하고 있던 영토 중에서 다음 영토를 제외시켰다. 그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일본영토에서 다음 도서를 제외한다.

- a) 다케레트(울릉도), 리안꾸르(독도), 꼬켈파르트(제주도)
- b) 류큐(오키나와)
- c) 쿠릴열도(지시마)

제4조: 일본 정부의 행정 및 사법관할권에서 제외한다.

- a) 1914년 세계 1차 대전 이후 일본이 침탈했거나 위임통치, 지배 혹은 여타 방법으로 소유한 태평양의 모든 도서
- b) 만주, 대만, 팽호군도(澎湖群島)
- c) 코리아(한국)

합국을 포함한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 설치 등이다.

33) 1945년 8월 2일 체결된 포츠담 선언은 미·영·중 3개국이 주도하였으나 후에 소련도 가담하였다.

34) 구성국은 미, 영, 소, 중,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 폴란드 등 11개국이었으나 1949년에 파키스탄과 버마가 가입해 13개국이 되었다.

d) 가라후도(남 사할린)

제5조: 본 지령서 내용에 있는 일본영토에 대한 규정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될 때까지 일본 정부에 보내는 사령부의 모든 지령서, 외교각서 및 명령에 적용한다.³⁵⁾

소련은 동경 연합국최고사령부에서 일본정부에 보낸 지령서(SCAPIN No. 677)와 알타협정을 근거로 1946년 2월 2일에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제정 러시아의 옛 영토의 수복이라는 명분으로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에 합병시켰다.

2) 평화조약과 미·소 관계

미·소 냉전이 고조됨에 따라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소련은 소외되고 장개석 중화민국정부는 대만으로 가게 되어 영·미 두 나라가 앞서의 지령서와 알타협정 그리고 카이로선언에 기초를 두고 평화조약 안(案)을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소련이 먼저 알타협정을 위반하고 일본 관동군(關東軍)에게서 노획한 무기를 모택동(毛澤東)에게 제공해 연합국 일원인 중화민국 장개석 정부를 본토에서 대만으로 패주하게 했던 것이다.

알타협정 부칙(附則) 2에서 “3국 열강정상은 일본이 패망한 후에 소련이 요구한 사항을 무조건 이행하며,³⁶⁾ 소련측은 일본의 탄압에서 중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중국에 병력을 지원하는 소·중(중화민국 정부)우호동맹을 체결할 준비를 표명한다³⁷⁾”라는 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소련은 중화민국에 대

35) МИД Японии, *Сборник важнейших документов, касающихся оккупации и контроля союзных держав в Японии*(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일본의 연합국 지배와 통치에 관련된 중요 문서집), T. 2, Москва, 1949, с. 289.

36) 당시 소련은 대련 항과 중국동부철도 이용권,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양도받고자 하였다.

37) МИД СССР,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период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T. 4(Крым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трёх союзных

한 지원은 형식에 불과했으며 사실상 전부터 중국 공산당을 비밀히 원조하고 있다가 일본이 패망한 후에는 관동군에게서 노획한 무기를 모택동에게 제공하였다

더욱이 소련은 북한에 무기를 공급해주고 남침을 승인하여 한국전쟁을 야기시켰고 1950년 10월에는 중국 의용군까지 북한에 과건토록 했다. 미국과 영국은 한국에 UN군을 결성해 이런 공산진영과 대결하고 있어 한국, 일본, 대만 등 우방의 방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해 졌다.

그러나 처음에 영국의 평화조약 안과 미국의 조약 안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영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또 미국에 비해 동북아에 이해가 적어 영토귀속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이견이 있었던 것이다. 영국의 안을 보면 쿠릴과 사할린, 대만 그리고 독도까지도 군사전략과는 별도로 알타협정과 포츠담 선언, 그리고 카이로 선언의 기본정신을 준수하려고 했다. 미국 안도 초기에는 쿠릴열도에 관해서 영국안과 일치했다.

(1) 1951년 3월 12일자 영국 안

1945년 2월 11일 알타협정에 따라 《일본은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소련에 양도한다》³⁸⁾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만 등은 중국 중앙정부(중국 본토를 점령한 공산당 정부)에 귀속시켜야 하며, 평화조약에 중국인민공화국 대표를 초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1951년 3월 30일자 미국 안

3월 30일 워싱턴 주재 소련대사관에서는 미국국무성으로부터 받은 외교각서(3월 29일에 발송)에 첨부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 5조는 “일본은 소련에 남 사할린 및 모든 인접도서 그리고 쿠릴열도를 양도한다”라고 하였다.³⁹⁾

держав - СССР. США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4-11 февраля) (조국전쟁기간 국제회의에서 소련, 크립 3국정상회의), М., 1979, с. 273~274.

38) FRUS, 1951, Vol. VI, pt. 1, p.910.

39) Б. Н. Славинский, там же, с. 161.

(3) 1951년 5월 3일자 영·미 안

영·미는 쿠릴과 남 사할린의 소련 양도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대만(臺灣) 귀속 문제 등으로 이견이 커지자 조정이 필요했다. 이에 영·미 외무성 실무 대표자가 1951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워싱턴(Washington)에서 평화안을 합동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영국은 앞서 밝힌 대로 대만을 카이로 협정에 따라 중앙정부인 《중국인민공화국에 귀속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를 평화회담에 참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⁴⁰⁾

이 영·미 합동 안에서도 쿠릴에 대하여 일본은 소련에 쿠릴열도 그리고 전에 일본이 주권을 획득한(포츠머스 조약) 남 사할린과 그 인접 도서를 양도한다⁴¹⁾라고 했다.

이렇게 쿠릴열도를 소련에 양도한다는 데는 영·미가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대표가 평화회담에 참석하는 문제와 대만 귀속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양국 고위층 회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⁴²⁾

그 후 1951년 6월 3일 미국대통령 특사 덜레스(John F. Dulles) 국무성 법률 고문이 런던(London)에 도착해 영국 외상에게 장개석 중화민국정부 대표가 평화조약에 서명을 해야 하고 모택동 중국공산정권은 한국에서 UN 군에 도전해 침략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일본과의 평화협상에 참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고 프랑스 파리를 거쳐 귀국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외교적인 활동으로 영국도 중국 공산정권의 평화회담 참석과 대만귀속 문제에 대하여 미국을 양해하고 동의하게 된다. 미국은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극동에서의 공산진영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을 동아시아의 보루로 또 미국의 이해를 일부 대신해주는 국가가 되기를

40) Б. Н. Славинский, *там же*, с. 164.

41) *От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к трёхсторонне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Сценарии развития нов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Японией, Россией и Соединёнными Штатами*(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냉전체제에서 3국 협력 체제로, 일·러·미의 새로운 시나리오), Москва : Наука, 1993, с. 139~141.

42) Б. Н. Славинский, *там же*, с. 16.

바라고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일본의 방위를 위한 전략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고려하고 또 미·일 방위조약을 준비하면서 동경 연합국사령부 그리고 일본정부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군사전략적인 면을 우선으로 쿠릴, 남사할린, 독도 그리고 대만문제에 관한 평화조약 안을 준비한다.

(4) 1951년 7월 3일자 미국 안

2조 《C》 : 『일본은 쿠릴열도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고,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으로 획득한 남 사할린과 그 인근도서에 대한 주권과 모든 법적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

소련정부는 소련에 『양도한다』는 국가 호칭이 삭제된 상기 미국 안을 1951년 7월 6일에 주미 소련대사관을 통해 전달받고 경악하고 소련 부외상 그로미코(Андрей А. Громько)는 1951년 7월 6일 미국에 보낸 회신에서 1951년 3월 30일자 미국의 외교각서에는 소련에 남 사할린 및 그 인접도서 그리고 쿠릴열도를 양도한다고 되었으나, 1951년 7월3일자 미국의 외교 각서에서는 소련에 양도한다는 『소련』이 삭제되어 있다⁴³⁾고 항의하고 미국에서 1951년 9월 4일에 개최되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에 소련측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참석할 뜻을 미국에 통고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소련에 양도』한다는 항목을 취소시키는 데는 일본의 제안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얄타협정은 1945년 2월 11일에 체결되었으나 포츠담선언은 얄타협정 후에 1945년 7월 26일에 발표하였다. 이 포츠담선언의 조건에 의해 일본은 항복하게 되었고 그 8조에 “카이로 선언을 이행하며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는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앞으로 지정할 도서로 제한한다**”⁴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항복조건으로써 일본영토에 대한 제한 규정이 포함된 포츠담

43) *АВПРФ*(러시아연방 대외정책 문서보관소), Фонд А. Я. Вышинский, Опись. 24, Пор. 369, папка 32, Дело 193-США, лл. 22~23.

44) *МИД СССР, Сборник действующих договоров, соглашений и конвенции . заключенных с и иностранными державами*(외국열강과 체결한 조약, 협정, 약정집), выпуск 11, М., 1955, с. 104~106.

선언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미국 측을 설득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대 소련전략에 고심하던 중에 일본의 이 제안을 받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출구를 찾게 되어 카이로 선언 및 알타협정에 일본측 안을 절충해 소련과 중국에 양도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지금과 같은 문제의 소지를 남기게 하였다.

앞서 미국이 외교각서로 1951년 3월 30일에 소련측의 검토를 위해 보낸 미국의 평화안은 알타협정의 틀 안에서 준비하였으나 1951년 7월 3일자 안에서는 일본측 안이 반영되었던 것이다.⁴⁵⁾

당시 소련은 미국 상원에서 사할린과 쿠릴을 소련에 양도한다는 알타협정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최종 영·미 안에 소련에 양도한다는 말을 삭제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하였다.⁴⁶⁾ 그러나 미국 상원에서도 평화조약문을 검토하면서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영토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동경 연합국 사령부는 평화조약에 쿠릴을 소련에 귀속시키고 조약문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미국무성에 보고했었다. 만약 소련이 참가하지 않고 평화조약을 일본과 체결하면 소련군이 일본에 침입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⁴⁷⁾ 그러나 미국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사전 대책으로 미리 미·일 방위조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소련은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을 국제무대에서 대변하고 있어 서방국가와는 물론 UN과 영·미안을 검토한 극동위원회에서도 고립되어 평화조약 안에서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주장할 기회를 놓쳤다.⁴⁸⁾

소련은 급히 20쪽에 당하는 조약안을 준비하였지만 평화회의에서는 소련측 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았고, 다시 같은 안으로 영·미안에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으나 투표에 회부시키지도 못하고 말았다.

45) Б. Н. Славинский, *там же*, с. 178. (1951년 10월 1일 텔레스가 미국 상원의원에게 보낸 회답)

46) Б. Н. Славинский, *там же*, с. 161.

47) *FRUS*, 1951, Vol. VI, pt. 1. Wash., 1977, p.908

48) МИД СССР, *Сборник нот и заявлений* (외교각서와 성명서집), Москва, 1974, с. 17~22.

소련 측이 작성한 쿠릴열도 등에 관한 안은 다음과 같았다.

(5) 소련의 평화조약 안(1951. 7)

{★ **한국관련 안** 3조: 일본은 본 조약으로 한국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물론 인접지역의 모든 도서를 포함하여 법적인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본 조약으로 포기한다.}

(Статья 3. Япония настоящим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всех прав, правооснований и претензий на Корею, включая все прилегающие к корее острова. в том числе Чечжудо (Кверьпарт), Чхенгса ндо(Гомундо. Порт Гамильтон) и острова Улл- ынгдо(Дажелет)).

7조: 일본은 소련연방공화국에 남 사할린과 그 인접도서 그리고 쿠릴열도에 대하여 완전한 주권(主權)을 인정하고 이 영토(필자 주: 사할린과 쿠릴)에 대한 법적인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⁴⁹⁾

(Статья 7. Япония признает полный суверенитет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на южную часть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а со всеми прилегающими к ней островами и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и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всех прав, правооснований и претензий на эти территории.)

미국에 도착한 그로미코는 겨우 9월 5일 야간회의에 발언권을 얻었다. 일본과의 평화조약 문은 카이로와 얄타협정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위반이라고 맹비난하고, 만주, 대만, 펑호군도 등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따라 1949년부터 실질적으로 중국인민을 대표하고 있는 중국인민공화국에 귀속시켜야 하며, 본토를 잃은 대만 국민당 정부 대신에 중화인민공화국을 UN 안전보장 이사국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대해서는 일본은 소련에 모든 기본권과 청구권을 포기하고 양도하며 일본

49) *АВП РФ*, Фонд. А.Я. Вышинский, оп. 24, папка 32. Дело 396. ч.2. лл. 91~116.

영토로부터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동해에 위치한 일본의 대마도(對馬島)는 비무장지대로 지정해 상선이 자유롭게 동해(일본해)를 내왕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요구와 주장은 평화조약 원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하였다.

일본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2주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수상 요시다(吉田)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도착해 로비활동을 벌리며 미국과 방위조약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⁵⁰⁾ 요시다는 미·영 등의 지지를 받고 평화조약 수락하는 연설에서 “일본 대표단은 공정하고 관대한 이 평화조약을 기꺼이 수락한다. 그러나 쿠릴열도 등에 대한 소련대표단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이의를 제기했다.⁵¹⁾

결국 소련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불공정 조약이라고 동구권 공산진영과 함께 서명을 거부하였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인도, 버마 등이 소련에 동조하였으며 중국인민공화국은 참석도 못하였다. 일본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총 49개국과 1951년 9월 8일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평화 조약 문은 총 10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영토문제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⁵²⁾

제2조:

- a) (일본은 한국이 독립국가임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여 한국에 주권과 모든 기본권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
- b) 일본은 대마도 및 뽕호열도(澎湖列島)에 대한 모든 기본권과 청구권을 포기한다.
- c) 일본은 쿠릴열도에 대해 모든 기본권과 청구권을 포기한다. 그리고

50) 소련측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도도 미·일이 소련 함대의 태평양 진출을 방해하기 위해 독도가 군사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한국영토에서 삭제했던 것이다. 사실상 쿠릴과 독도관련 평화안은 미국과 일본이 준비한 것이다.

51) В. К. Зиланов, А. А. Кошкин, И. А. Латышев и другие, там же, с. 116.

52) МИД СССР,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териалы по Японии(1951~1954)*(일본관련 자료 및 조약집), с. 89~104.

1905년 포츠머스 조약으로 획득했던 사할린남부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주권을 포함 모든 기본권과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6조:

a) 연합국의 모든 점령군은 본 조약이 효력이 발생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서 철수한다. 어떤 경우에도 철수는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90일을 넘기지 않는다.

제26조: 1942년 1월 1일 UN 선언⁵³⁾에 서명한 모든 국가, 혹은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 가담한 국가, 혹은 본 조약에 서명을 한 제23조에서 명시한 국가가 아닌 국가와는 일본은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건 혹은 그 조건을 기본으로 양국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본 조약이 최초 효력이 발생하고 3년이 경과하면 일본은 이 평화조약으로 조약을 체결할 의무가 소멸된다.

일본은 조약체결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규정대로 조약을 체결할 의무가 소멸되므로 소련과 새로운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소련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문에 서명을 했다면 남사할린이나 쿠릴이 법적인 소유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조약문 중에서 제6조에 있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연합군은 90일 내에 철수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난 후 수 시간 만에 같은 날 패전국의 구속에서 벗어난 일본은 자주국가로서 미·일 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제6조의 효력은 상실되어 미군은 계속 일본에 주둔할 수 있게 되었다.

53) 워싱턴에서 26개국 대표가 선언한 반 히틀러 동맹을 표명한 선언문으로 후에 UN 선언으로 개정하였다. 서명국은 영국, 미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화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2개국이다.

(6) 평화조약 체결 직후의 일본 정부의 태도

일본 수상 요시다는 1951년 10월 18일 국회증언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은 “쿠릴열도와 사할린 등에 기본권과 주권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⁵⁴⁾ 이제 일본은 쿠릴열도와 사할린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이다.⁵⁵⁾

이에 앞서 동년 10월 6일에 일본외무성 조약국장 구마오 니시무라(西村)는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일본은 쿠릴열도에 대한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쿠릴열도의 소속에 대한 발언권을 잃었다. 일본은 동(同)도서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데 동의했으므로 소속문제는 조약문의 규정대로 해결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외무성 조약국장은 동년 10월 19일에도 일본 국회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특별위원회의 증언에서 쿠릴열도에 관련해 다음과 같은 소신을 밝혔다. “평화조약에서 규정한 쿠릴열도의 경계는 북 쿠릴열도와 남 쿠릴열도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난 9월에 체결한 평화조약에서 규정한 쿠릴열도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조약문에 규정한 쿠릴열도에 대한 개념은 남·중·북쿠릴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⁵⁶⁾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평화조약에 서명을 소련이 거부하여 남 쿠릴 문제 등은 러·일이 1956년 모스크바 공동선언을 할 때까지 미제(未濟)로 남아있게 되었다.

54) 미·영의 알타조약과 일본의 항복 조건인 포츠담 선언안과의 절충안으로 소련에 양도한다는 문구는 삭제했으나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55) 『本邦問題の事例集』, 東京, 1968, p.68.

56) 「赤旗」, 東京, 1969. 3. 6.

4. 소·일 양국 평화조약 협상과 통상 수교 재개

1) 모스크바 소·일 공동선언(1956. 10. 19)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거부로 소·일 양국 간에 평화조약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이해관계에 상호 모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미국에 국방은 의존하고 있었으나 다른 긴박한 현안문제로 쿠릴열도 인근해역에서의 어업활동과 UN가입문제 그리고 러시아에 남아 있는 일본인 포로귀환문제 등의 해결이 시급했다.

결국 소·일 양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후 3년이 경과하면서 1955년 처음 런던(London)에서 양국 대사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일본이 쿠릴열도와 남 사할린의 반환을 요구하자 회담은 1년여 간 별 진전이 없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다게소 시모다의 회고에 의하면 마츠모토(松本) 주영 일본 대사에게 3개의 일본 측 협상안이 전달 되었다고 한다. 즉: 1안) 전 쿠릴열도와 남 사할린 요구, 2안) 남 쿠릴 4개 도서, 3안) 최소한 하보마이와 시꼬탄 2개 도서였다. 1)과 2)는 협상전략으로 부수적인 것이었으며 일본 북해도에 연접해 있는 2개 도서의 반환이 목적이었다.

최악의 경우는 소련이 상기 안을 전부 거절할 것을 가정했었으나 런던 주재 소련 대사 야코프 말리크(Яков. А. Малик : 1945년 주일대사, 6·25 때는 UN주재 대표)가 본국에서 귀임한 후 1955년 8월 초에 하보마이와 시꼬탄 두 개 도서를 평화조약 체결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하자, 마츠모토에게는 반가운 제안이었다.⁵⁷⁾

그 후 1956년 10월 일본은 수상 하도야마(鳩山)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대표단이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10월 19일 양국 정상화에 대한 “소·일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공동선언문 9조에는 소련정부와 일본정부는 전쟁상

57) Ю. М. Лужков, И. Б. Титов, *Курильский синдром*(쿠릴 증후군), 2008, с. 170~171.

태의 종결을 확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복한 다음에 평화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⁵⁸⁾ 특히 소련은 선언문에서 “일본의 희망에 부응하고 일본정부의 이해를 고려하여 하보마이(홋카이도에서 3.7km 거리)와 시코탄 두 도서를 일본에 양도하는데 동의하고 **실제적인 양도는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행한다**”고 하였다.

선언문 중에서 중요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1조: 소련과 일본과의 전쟁상태는 본 조약의 발효일부터 중지되며 양국간 평화와 우호적인 선린관계를 회복한다.
- 2조: 소련과 일본은 외교 및 영사관계를 회복시킨다. 양국은 바로 대사급 외교관을 교환하고 양국내의 영사관 설치는 외교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 4조: 소련은 일본이 UN회원국 가입을 반대(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
- 9조: 소련과 일본은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킨 후 평화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한다. 소련은 일본의 요청에 부응하고 일본정부의 이해를 감안하여 일본에 하보마이와 시코탄 두 도서를 양도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양도는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행한다.
- 10조: 본 선언문은 양국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본 선언은 효력이 발생하며 비준서는 조속히 동경에서 교환한다.

소련최고회의 간부회의 비준:	1956년 12월 8일
일본국회 비준	: 1956년 12월 8일
비준서 교환 일	: 1956년 12월 12일 ⁵⁹⁾

58) В. К. Зиланов, А. А. Кошкин, И. А. Латышев и другие, там же, с. 120.

59) В. К. Зиланов, А. А. Кошкин, И. А. Латышев и другие, там же, с. 130~133. : МИД СССР, Сборник действующих договоров, соглашений и конвенций, заключенных СССР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ып. XVII-XVIII(소련이 외국과 체결해 발효 중인 조약 및 협정문 전집), М., 1995, с. 257~260.

이렇게 소·일은 모스크바에서 소·일 공동선언에서 “전쟁 상태의 종결과 외교 및 영사관계의 회복 그리고 소련은 **일본의 UN가입을 반대하지 않으며 일체의 전비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⁶⁰⁾라고 했다. 또 앞으로 양국은 평화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조약체결 이후에 하보마이와 시코탄 두 도서를 일본에 양도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던 것이다.

2) 미(美)·일(日) 신 방위조약 체결(1960. 1) 이후 남 쿠릴 문제

일본은 약속한 평화조약에 관한 협상을 계속 지연시키면서 1959년에는 각종 지도를 발행하고 남쿠릴을 북해도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동년(同年) 기시(岸) 수상은 영토문제는 일본이 쿠릴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였다.⁶¹⁾

이때부터 북방영토 반환투쟁이 일본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쿠릴 문제에 관해 관방장관 하토야마(鳩山))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상 이시바시(石橋)는 소련과의 평화조약 체결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소련과 북방영토문제로 의견이 충돌하여 오늘날까지 미결문제로 남아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여론을 부추겼다. 일본은 국토방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1960년에 다시 미국과의 밀접한 군사협력과 일본에 재무장을 허용한 신 미·일 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소련은 이 신 미·일방위조약이 1956년에 모스크바에서 체결한 소·일 모스크바 공동선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항의하고 일본에 양도하기로 한 하보마이와 시코탄 두 도서에 대해 양도를 취소한다고 하였다.⁶²⁾

즉, 니키타 흐르쉴초프(Никита С. Хрущёв)소련 수상은 소련에 적대적인 미·일 신 방위조약이 발표되자, 1960년 일본정부에 외교 각서를 보내 “일본에서 외국군을 철수시키고 소·일 평화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두 개

60) 소련군은 극동전선에서 약 38,000명이 전사했다.

61) 「毎日新聞」, 1960. 3. 9.

62) *Известия*, 1960. 1. 29.

도서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양도할 2개의 도서에 미군의 군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소련에 위협이 된다고 말하면서 국제조약 법에 관한 비엔나 협정 62조 2항과 3항에 “조약 체결 이후 일국이 조약 당시의 조건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거나 연기 또는 부분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들어 2개 도서 양도를 취소한 것이다.

이런 사건이 있는 후 1977년에 전 일본 수상 다나카(田中)가 소련방 최고간부회의 의장이며 소련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한 레오니드 브레즈네프(Леонид И. Брежнев)와 모스크바에서 도서문제로 협상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브레즈네프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만 않는다면 소련은 평화조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나타난 현실을 이성적인 태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평화조약이 통상 광범위한 문제를 포함하게 되므로 그 안에 국경선 문제가 포함된다고 도서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었다.”⁶³⁾고 했다. 이후 소련은 일본과 도서문제 자체를 회담 의제로 일정에 상정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고르바초프 대통령 때에 와서 비로소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미하일 고르바초프(Михаил С. Горбачёв)는 뼈레스트로이까(개혁) 정책을 실시하면서 전 소련지도자들과는 달리 유연하게 일본과 쿠릴문제 등을 포함해 평화조약을 논의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소련 대통령으로서 1991년 4월 16~19일에 전후 소련지도자로서는 최초로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일본 천황의 초대도 받았다.

소·일 수뇌회담에서 일본 수상 가이후(海部)는 남쿠릴을 포함하는 평화조약 문제 등 소·일 관계의 전반에 걸쳐 우호적인 개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고르바초프는 곧 남쿠릴 4개 도서에 일본인의 무비자 방문과 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 지역에서 소·일의 공동 경제활동이 실현될

63) *Правда*, 1977. 4. 7 : 「朝日新聞」, 1977. 4. 7.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남쿠릴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일간에 도서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일본 측의 도서반환에 대해서는 고르바초프도 전임자와 다를 바 없었다. 그는 1956년에 체결한 소·일 모스크바선언에 언급된 평화조약 체결 후 2개 도서 양도 문제를 재검토하자는 일본 수상의 제안에는 응답을 피하면서 양국 간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평화조약을 조기에 체결하자는 말만 반복했다.⁶⁴⁾ 하지만 곧 발트 3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소련 탈퇴선언 그리고 러시아 내의 민주화 혁명으로 고르바초프는 권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5. 러시아 연방 공화국의 쿠릴 정책

1) 엘친 대통령의 남쿠릴 협상 좌절

1991년 8월 민주화 혁명으로 소련이 붕괴된 후 러시아 연방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초대 대통령 보리스 엘친(Борис Н. Ельцин)은 1993년 10월에 일본을 방문해 동경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모스크바는 러·일 양국에 영토문제가 미해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 (2) 양국간에 영토문제는 꾸나쉬르, 이뚜루프, 하보마이, 시코탄 4개 도서이다.
- (3) 러시아는 소련의 계승국으로서 소련이 체결한 모든 조약을 준수할 것을 보증한다라고 했다. 또 기자회견에서 엘친은 러시아는 《X》일, 즉 언젠가는 일본에 시코탄과 하보마이는 당연히 양도할 것이며 꾸나쉬르와 이뚜루프의 상태는 2)항에 따라 일본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⁶⁵⁾

64) *Правда*, 1991. 4. 20 : 1991. 4. 27.

65) Б. Н. Славинский, *там же*, с. 186.

사실 러시아는 소연방이 붕괴되면서 전 소연방의 가입국가 간에 유통되던 생활 필수품을 비롯한 일반 상품의 유입이 일시에 어렵게 되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재정과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었다. 옐친은 전 제정 러시아가 미국에 알래스카를 1867년에 720만 달러에 매도하였듯이 일본에 우선 모스크바 선언에서 언급한 2개 도서를 양도하고 그 협상과 액수에 따라 다음 2개 도서를 양도한다는 계획안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사할린 주, 학계, 국회, 군부, 어민들이 강력히 반대해 계획은 무산되었고 협상은 진전없이 좌절된 채 임기를 마쳤다.

2) 푸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남 쿠릴 정책

옐친의 뒤를 이은 블라지미르 푸틴(Владимир В. Путин) 대통령은 남 쿠릴 문제에 대해서 사회 여론에 관심을 갖고 옐친과는 달리 강경책으로 선회했다. 푸틴은 1956년 모스크바 선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우선 평화협상을 체결하고 약속한 2개 도서를 반환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리고 극동 개발계획에 남 쿠릴을 포함시켰다. 남 쿠릴의 개발사업에 일본의 참여를 희망하며, 러시아가 행정 주권만 소유하고 일본 측은 자유로운 투자 및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안을 일본에 제시했었다.

그러나 아소오(麻生) 일본 수상은 2006년 남 쿠릴 4개 도서의 면적을 합산해 2등분하여 일본이 3개 도서 더하기 이투루프의 4분의 1(하보마이, 시코탄, 꾸나쉬와 이투루프의 4분의 1)을 소유하고 이투루프의 4분의 3을 러시아가 소유하라는 안을 제시했었다.⁶⁶⁾ 이 두 안의 협상도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8개국 정상회의 때 일본 수상으로부터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제의를 받았으나 남 쿠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도 거부하였다. 그리고 2010년 11월에는 전격적으로 남 쿠릴 도서의 하나이며 일본 홋카이도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하보마이를 방문하고 경제개발 계

66) 「讀賣新聞」, 2006. 12. 14.

획과 국경경비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⁶⁷⁾

3) 소련 붕괴 전후의 미국과 남 쿠릴 관계

일본 북해도와 러시아 캄차트카 중간에 위치한 쿠릴열도는 미·소 대결 국면에서 대소(對蘇) 견제는 물론 일본의 방어에도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전후 소련이 알타협정으로 쿠릴열도를 점령한 것이 미국과 일본에게는 군사전략적으로 큰 손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의 분할에서 『소련에 양도한다』 항목을 애써 삭제하였던 것이다.

그 후 1956년 일본 외상 시게미쓰(重光)가 일본 평화협상대표단을 인솔하고 런던에 가면서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미국무장관 덜레스(D.F. Dulles)는 소련과의 쿠릴열도 협상을 거부하라고 충고하면서 만약 일본이 소련과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면 류큐(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국은 또 모스크바 소·일 공동선언(1956. 10. 19)을 발표한 직후인 11월에는 일본정부에 알타협정은 회담에 참가한 3국정상의 전시 일반 목적에 관한 선언으로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설명하고 미국 정부는 남 쿠릴이 북해도에 소속된 일본영토로 생각한다고 표명했다.⁶⁸⁾

미국의 이와 같은 입장은 북방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지를 더 강화시켜주고 소·일 평화조약 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유럽에서 전후 영토질서가 연합국의 협정에 따라 확정되었던 예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쿠릴을 일본영토로부터 제외시킨 사실과는 모순적이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미·러간에 해빙무드가 조성되면서 이전까지 남 쿠릴 문제가 사실상 미·일과 소련 3국 관계에서 미국은 전과는

67) *Известия*, 2011. 3. 14.

68) A. П. Марков, *Россия – Япония* (러시아와 일본), M., 1996, с. 56~47.

달리 러시아에 우호적이고 남 쿠릴도서 문제에 대해서는 러·일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 미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Donald H. Rumsfeld : 1975~1979 국방장관, 2001~2006 부시대통령 행정부 고문)는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일본과 남 쿠릴 문제 해결에 협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성명이 있는 후부터는⁶⁹⁾ 지금까지 미국은 남 쿠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10년 11월에 메드베데프가 꾸나쉬르와 하보마이⁷⁰⁾의 방문에 대하여 미국무성에서 미·일 방위조약에 근거에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을 뿐이다.⁷¹⁾ 반면에 러·일 간에는 남 쿠릴에 대한 영토주권 주장이 날로 첨예화되어 가는 양상이다.

6. 남 쿠릴 영유권에 대한 러·일 양측의 주장

1) 일본측의 주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일 신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일본은 신문, 잡지에 쿠릴은 고대로부터 일본의 북방영토라고 홍보하면서 거국적으로 반환협회 등을 구성하고 일본의 북방영토라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1. 1855년 시모다 조약에서 러시아가 북방영토를 일본영토로 인정했다.
2. 1945년 소련이 알타협정은 일본 대표가 참여하지 않고 소련, 미국, 영국 수뇌가 비밀리에 합의하였으므로 법적인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아무 효력이 없다. 더욱이 1943년 카이로 선언은 연합국이 외국의 영

69) *Известия*, 2004. 12. 4

70) 평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에 반환을 약속한 도서로 현재는 러시아군 기지로 사용하며 일반인은 거주하지 않는다.

71) *Правда*, 2010. 11. 5.

토 침략을 금하고 있다.

3. 북방영토는 쿠릴열도의 일부가 아니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회담 때에도 일본은 북방영토는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소련은 평화조약에 서명을 거부해 쿠릴에 대한 어떤 영토주권 주장도 할 수 없는 데도 탐욕과 무력으로 북방영토를 소련에 합병한 것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공식 문서에서 쿠릴을 일본영토로 생각한다고 밝혔다.⁷²⁾
4. 1956년 모스크바 소·일 공동선언에 따라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양국의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 UN에 신탁하였으니 이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⁷³⁾
5. 1993년 10월에 발표한 러·일 동경선언에서 옐친은 일본과 문제된 4개 도서를 시인하였다.

2) 러시아측의 주장

러시아는 1646년에 콜로보프(Н.И. Колубов)가 쿠릴열도를 발견하였으며⁷⁴⁾ 공식적인 문서기록으로는 뽀뜨르 I 세 (Пётр I)가 러시아인 탐험가 아플라스프(В. Атласов)를 극동원정에 파견하여 1691년에 감차카 반도와 쿠릴을 탐험하고 아이누 족에 대해서 뽀뜨르 대제에게 보고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예까제리나 II 세(Екатерина II)는 칙령으로 1786년에 쿠릴을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키고 아이누 족에게 러시아 국적을 갖게 했으며⁷⁵⁾ 1796년에는 최초로 러시아 영토로 쿠릴 지도를 발행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쿠릴에 대한 영유권을 밝히고 있다.

72) 일본 수상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문서에서 4개 도서를 일본영토로 귀속시키는데 실패하고 조약수락연설에서 4개 도서는 고유의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했었으며 미국은 조약 문외의 공식문서에 일본영토로 생각한다는 말을 했었다. 그러나 조약문이 상위에 있다.

73) 『北方領土』(Северная территория), М., 1992, с. 5~14.

74) 1643년경에 발견했다고 하는 자료도 있다.

75)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06. 1. 12.

(1) 1855년 시모다 러·일 통상조약에서 남 쿠릴을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극동 러시아 영토가 너무 광활해 쿠릴에 까자끄 경비병을 주둔시키지 않은 허점을 이용해 일본은 아이누 족도 일본인이라고 자국 수비대를 이투루프까지 배치시켰다. 러시아는 일본과 복잡한 관계를 피하고 미국이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조급해져 일본의 요구에 양보했다.

그러나 1905년 일본 스스로 포츠머스 러·일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전에 러시아와 체결한 모든 조약을 폐기시켰기 때문에 시모다 조약은 실효성을 상실했다. 쿠릴열도의 분할에 관한 조약이 없으므로 쿠릴은 러시아에도 일본에도 속하지 않으며 국제법상 역사문제는 영토주장의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최초의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 2차대전에서 알타협정에 따라 전승국 지위로 쿠릴을 점령하였다.

(2)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미국을 포함한 소련대표와도 서명을 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미·일이 미·소 냉전시기에 소련의 세력확장을 염려해 명백히 이전 에 체결한 알타협정을 위반했다. 소련이 서명을 거부했다 할지라도 샌프란 시스코 평화조약문에 일본은 쿠릴과 남 사할린을 일본영토에서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한 평화조약을 49개국과 체결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당시에도 이미 소련영토로 편입되어 실제 주권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서명국이 확인하고 그 중 한 나라도 항의나 반대를 하지 않았다.

(4) 1956년 모스크바 선언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양(兩) 도서를 일본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명백히 소련에 대항하는 제2차 신 미·일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한 뒤에 평화조약 체결협상을 무기한 연기하였다.⁷⁶⁾

76) A. П. Марков, *Россия - Япония* (러시아와 일본), M., 1996, c. 32~40.

(5) 일본 측의 문서는 최초로 일본 정부가 모가미를 1785~1786년에 남 쿠릴열도에 탐험시켜 1786년에 지도를 발행한 것이 일본측의 최초의 문서이다. 이 지도에 남 쿠릴은 일본 영토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러시아인을 목격했다는 기록도 함께 있다. 일본에서도 이 지도를 최초의 공식적인 일본측의 쿠릴열도 탐험으로 인정하고 있다.⁷⁷⁾

(6) 일본은 또 러시아에 앞서 16세기경에 일본 어부가 낚시를 하면서 쿠릴을 먼저 발견하고 아이누 족도 일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에 거주하는 쿠릴 원주민인 아이누 족은 1990년 통계에 따르면 24,384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일본인과 용모와 언어가 다르다.⁷⁸⁾

북해도도 19세기 초에 일본이 합병하였다. 쿠릴 역시 일본이 주장하는 고대(古代)로부터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닌 아이누 족의 영토였던 것이다.

7. 맺음말

이상에서 쿠릴열도에 관련된 러·일 영토관련 조약문과 양국의 영토분쟁에 관한 역사적 관계는 물론 러·일·미와 얽힌 관계를 모두 살펴보았다. 사실 러·일 간에는 최초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쿠릴에 대한 영토주권 분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은 1855년 시모다 통상 및 국경조약으로 쿠릴을 분할하면서 분쟁은 일단락 지었다. 그 후 러시아

77) 일본은 1635년 홋카이도를 탐험하면서 최초로 쿠릴에 대한 말이 등장하나 실제적으로 쿠릴까지 탐험했는지 혹은 소문을 들은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644년에 지시마라는 호칭으로 꾸나쉬르와 이뚜르프 두 개 도시를 그린 지도를 근거로 일본영토로 주장하고 있으나 1772년 러·일 통상 및 국경경계 회담에서 일본은 북해도만 일본영토로 간주한다는 기록이 있다. 최초의 남 쿠릴 지도는 홀란드인 마르틴 프리즈(Мартин Фриз)가 1643년에 제작하였다.

78) Asahi evening news, 1992. 11. 3. 일본은 영토분쟁지에는 항상 어민을 먼저 등장 시킨다. 남 쿠릴은 낚시꾼, 독도는 어업권, 다오위다오는 건어물(乾魚物)장을 먼저 설치했다고 주장한다.

와 일본은 1875년 삿페르부르크 조약으로 국경을 개정해 남 사할린과 전 쿠릴열도를 서로 교환하면서 국경이 안정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면서 1905년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로부터 남 사할린을 빼앗고 앞서의 시모다와 삿페르부르크 두 조약을 폐기시켜 시모다와 삿페르부르크 두 조약은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일본이 주장하는 남 쿠릴이 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주장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역사적으로 일본영토라는 주장도 앞서 보았듯이 원주민인 아이누 족이 일본인이 아니다.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에서 소련이 탐욕으로 일본영토인 남 사할린과 남 쿠릴을 불법으로 점령했다고 항의하고 있으나 도리어 일본은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켜 한국은 물론 남 사할린을 합병하고, 게다가 러시아 혁명으로 혼란이 야기되자 무단으로 러시아 극동 여러 주를 침입해 유린하고 약탈행위를 자행했다. 게다가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킨 일본의 침략과 약탈에 비하면 소련은 알타협정과 필리핀에 주재했던 연합국(영·미·중·소) 최고 사령관의 작전명령 1호에 의해 쿠릴을 점령했던 것이다.

특히 소련은 전에 일본에 빼앗겼던 남 사할린과 고토(故土)인 쿠릴을 다시 수복하고 군국주의 전범(戰犯)국가인 일본을 징벌(懲罰)한다는 성격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1855년에 러·일이 체결한 시모다(下田)조약을 근거로 역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일본영토라고 러시아에 남 쿠릴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일본에 세계 2차 대전의 결과에 승복하라고 맞대응하여 러·일 쌍방이 남 쿠릴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이 계속 러시아에 북방 영토의 반환을 강요한다면 러·일 양국 간에는 불신과 적대감이 증대되고 또 이와 유사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우리 독도와 중국의 다오위다오(釣魚島) 문제도 악화시켜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투고일 : 2011. 3. 28, 심사수정일 : 2011. 4. 21,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 쿠릴, 쿠릴열도, 남쿠릴, 남쿠릴 열도, 쿠릴 영유권, 러·일 영토분쟁,
일본의 북방영토, 아이누(Аи́ну), 지시마렛도(千島列島),

<ABSTRACT>

The research of Russian-Japanese dispute for Russian Kuril Islands

Park, Chong-hyo

The current dispute between Russia and Japan over the Kuril Islands began with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However, the history of Russian-Japanese dispute over the Kuril islands can be traced back to the time before the conclusion of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in the city of Shimoda in 1855.

In regard to this dispute, the Treaty of Shimoda partitioned the Kuril islands, with the state border running between Urup and Iturup. It was settled that four islands situated north of this border, that is Southern Kurils(or Northern territories) would belong to Japan, while islands to the north of the border, including Urup, would belong to Russia. However in 1875 the border was revised again, and in accordance to the Treaty of Saint Petersburg Russia and Japan exchanged South Sakhalin to all the Kuril Islands. This made the border more stable.

Suddenly, without declaration of war, Japan began hostilities with Russia at the Korean port of Incheon on February 8, 1904. Then it attacked the Russian Second and Third Pacific Squadrons in coastal waters of Tsushima and won. There upon, the previous treaties of Shimoda and Saint Petersburg were abrogated and replaced by the Treaty of Portsmouth in 1905. Japan took South Sakhalin from Russia and had its dominance in Korea officially recognized. Because of this the previous treaties of Shimoda and Saint Petersburg became in valid. So Japanese claims for that South Kuril Islands are legally Japanese territory lost any meaning. There are

problems with claims that this area is «historically» a Japanese territory, since the local indigenous people are Ainu, not Japanese, so such statement is the act of territorial aggression toward the minority.

Japan started the Pacific War which ended with its unconditional surrender to the Allied Powers. At the time of escalating Cold War between the USA and USSR 49 countries except USSR signed the San Francisco Treaty in 1951. Benefit from the Security Treaty Between USA and Japan, Japan got guarantees pertaining to its national defense and started to develop as a great economic power. Japan still lays claims to Russia and describes South Sakhalin and South Kuril as «greedily and unlawfully occupied territories». However it is Japan who started Russian-Japanese war and annexed Korea and South Sakhalin. Later, using chaos in Russia arising from the revolution, Japan annexed some regions of Russian Far East and kept the musing Scorched Earth tactics for 5 years. Unlike the Japanese invasion, Soviet Union seizure of Kuril was done in accordance with Yalta Pact and apprehending of duality of Aliens Powers(England, USA, China and USSR). After this the USSR fulfilling the Yalta Pact regained South Sakhalin and Kuril and punished Japan for war crimes.

Had the idea of socialism not spread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had the Cold War never started, Japan officially would transfer South Sakhalin and Kuril in 1951 to Soviet Union in accordance with the San Francisco Treaty. So there would be no basis for a dispute with USSR. In other words, had the name of Soviet Union been officially included in the San Francisco Treaty, Japan would never have had anyway to demand Sakhalin and Kuril from USSR.

The USSR collapsed in 1991 and Russia have improved its relationships with USA, so now United States does not intervene in the island's dispute as actively as it did before. So the problem of South Kuril becomes a problem of Russian-Japanese relations and entered new phase.

Japan however which has remained quite aggressive eve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Soviet-Japanese Joint Declaration of 1956 which agreed to hang over two islands, didn't execute the terms of Declaration of 1956 and

again started territorial disputes with neighbor countries claiming 4 islands from Russia. Accordingly Russia has taken firm actions in strengthening defense including ballistic missile for protection of South Kuril and insists on maintaining territorial holdings from the Second World War.

The Japanese assertion of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has led to nothing except mistrust and tension.

Key Words : Kuril Islands and Japan, North territory of Japan,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Russia and Japan